

작품 이름	어휘	뜻	용례
부벽루(浮碧樓)	부벽루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부벽루(浮碧樓)	기린마	고구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신이한 말을 의미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부벽루(浮碧樓)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 주몽을 의미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부벽루(浮碧樓)	부노라니	부르려 하니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고시(古詩) 7	행채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청산별곡(靑山別曲)	멀위	머루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청산별곡(靑山別曲)	드래	달래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청산별곡(靑山別曲)	우러라	우는구나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청산별곡(靑山別曲)	널라와	너보다(또는 너와 마찬가지로)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청산별곡(靑山別曲)	한	많은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청산별곡(靑山別曲)	니러	일어나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청산별곡(靑山別曲)	가던 새1	갈던 밭고랑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靑山別曲)	가던 새2	(지나)가던 새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靑山別曲)	물	속세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靑山別曲)	잉 무든 장글	이끼 묻은 쟁기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靑山別曲)	나즈란	낮은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청산별곡(靑山別曲)	디내와손더	지내왔지만	이링공 더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청산별곡(靑山別曲)	오리도 가리도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청산별곡(靑山別曲)	바므란	밤은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청산별곡(靑山別曲)	더디던	던지던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청산별곡(靑山別曲)	누리라	누구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청산별곡(靑山別曲)	피리도 괴리도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청산별곡(靑山別曲)	바르래	바다에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청산별곡(靑山別曲)	혀거를	켜는 것을	사스미 값대에 올라셔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청산별곡(靑山別曲)	설진	배가 불룩한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청산별곡(靑山別曲)	강수	술독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청산별곡(靑山別曲)	비조라	빚는구나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청산별곡(靑山別曲)	잡스와니	붙잡으니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오리매	못 돌아오니	간 봄 못 오리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모든 기스샤	살아계시지 못하여	모든 기스샤 우를 이 시름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불기시운	밝히신	믈뎡곳 불기시운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즈시히	모습이	즈시히 헤나삼 헐니져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헤나삼	해가 지나갈수록	즈시히 헤나삼 헐니져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누늬 도랄	눈의 움직임이	누늬 도랄 업시 더웃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맛보기	만나 보기를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일오아리	이루리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죽	모습이나 모양	낭(郎)이여 그릴 무슨죽 죽 너울 길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다보짓 굴형히	다북쪽 우거진 구렁에 / 무덤에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사리
가시리	가시리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가시리	나는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음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가시리	잡스와	붙잡아	잡스와 두어리마는
가시리	선흐면	서운하면	선흐면 아니 올세라
가시리	-르세라	~할까 두렵다	선흐면 아니 올세라
가시리	설은	서럽게 한 / 서러워하는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정석가	계상이다	계십니다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난난	뜻이 있지 않은 조흥구. 여음구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난난 /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난난
정석가	당금(當今)	지금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디다	짓다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정석가	딩1	금속 악기의 소리 혹은 금속 악기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딩2	정(鄭). '딩(鄭)'과 '돌(石)'을 합쳐 정석(鄭石)으로 봄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정석가	-리잇가	-겠습니까	신(信)잇단 그즈리잇가
정석가	말다	재단하다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난난
정석가	박오이다	박습니다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정석가	사교이다	새깁니다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정석가	삭삭기	바삭바삭 소리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난난
정석가	세모래	가는(細) 모래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난난
정석가	선황성터	선왕선대(先王聖代). 태평성대	선황성터에 노니으와지이다
정석가	심고이다	심습니다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정석가	-아지이다, -어지이다	공손히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선황성터에 노니으와지이다 /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정석가	여신들	살아간들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
정석가	접주(接柱)하다	접붙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오이다
정석가	즈문	천(千)	즈문 해를 외오곰 여신들
정석가	철릭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난난
정석가	털초(鐵草)	무쇠로 된 풀	그 쇠 털초(鐵草)를 머저사
정석가	한쇼1	큰(하다) 쇼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정석가	한쇼2	황쇼	므쇠로 한쇼를 디어다가
어와 버힐시고~	버힐시고	베었구나	어와 버힐시고 낙락장송(落落長松) 버힐시고
어와 버힐시고~	동량재(棟梁材)	대들보로 쓸 재목	저근덧 두던들 동량재(棟梁材) 되리러니
시어머님 며늘아가 나빠~	알살피신	양상곳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을 만큼 매우 바짝 마른	알살피신 시어머님
시어머님 며늘아가 나빠~	되종고신	말라빠진	되종고신 시어머님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명구승지(名區勝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어디 벌였더냐
규원가(閨怨歌)	하마	벌써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규원가(閨怨歌)	소년행락(少年行樂)	과거 유년 시절에 즐겁게 놀던 일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규원가(閨怨歌)	속절없다	소용이 없다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규원가(閨怨歌)	설운	서러운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규원가(閨怨歌)	부생모육(父生母育)	부모가 낳고 기름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규원가(閨怨歌)	공후배필(公候配匹)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 好逑) 원(願)하더니
규원가(閨怨歌)	군자호구(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배필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 好逑) 원(願)하더니
규원가(閨怨歌)	경박자(輕薄子)	경박한 사람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 이 만나이셔
규원가(閨怨歌)	천연여질(天然麗質)	타고난 청초하고 고운 성품이 나 체질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 (天然麗質) 절로 이니
규원가(閨怨歌)	연광(年光)	세월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 (多猜)하여
규원가(閨怨歌)	다시(多猜)*하여	시기(猜忌)가 많음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 (多猜)하여
규원가(閨怨歌)	설빈화안(雪鬢花顏)	아름다운 얼굴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 可憎) 되거고나
규원가(閨怨歌)	면목가증(面目可憎)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 을 살 만한 데가 있음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 可憎) 되거고나
규원가(閨怨歌)	야유원(冶遊園)	기생집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 람이 나단 말가
규원가(閨怨歌)	백마(白馬) 금편(金鞭)	흰말과 금 채찍, 사내의 호사 스러운 기마 풍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 는고
규원가(閨怨歌)	자취눈	자국눈, 겨우 발자국이 날 만 큼 적게 내린 눈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
규원가(閨怨歌)	삼춘화류(三春花柳)	봄의 아름다운 경치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 (景物)이 시름없다
규원가(閨怨歌)	시름없다	감동이 없다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 (景物)이 시름없다
규원가(閨怨歌)	실술(蟋蟀)	귀뚜라미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 제
규원가(閨怨歌)	녹기금(綠綺琴)	푸른 거문고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규원가(閨怨歌)	소상야우(瀟湘夜雨)	중국 호남성 소상강 지역의, 밤에 비오는 풍경, 소상팔경의 하나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씻도는 듯
규원가(閨怨歌)	화표(華表)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 위가 있다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규원가(閨怨歌)	옥수(玉手)	여성의 아름답고 고운 손.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 마는
규원가(閨怨歌)	부용장(芙蓉帳)	부용을 그리거나 수놓은 방장 (房帳), 누부용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 소니
규원가(閨怨歌)	초로(草露)	풀잎에 맺힌 이슬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 갈 제
규원가(閨怨歌)	모운(暮雲)	날이 저물 무렵의 구름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 갈 제
규원가(閨怨歌)	홍안(紅顏)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 르는 말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소춘향가(小春香歌)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	길가에서는 때에 맞게 오후들 이 오이를 팔고 있음, 오후는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을 뜻 하는 말	노방(路傍)에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요 문전 (門前)에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라
소춘향가(小春香歌)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	문 앞에는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음, 오류 선생은	노방(路傍)에 시매오후과(時買五侯瓜)요 문전 (門前)에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라

		도연명의 호이며,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고 함	
소춘향가(小春香歌)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華時)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운 때, 여름철 화사한 때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華時)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소춘향가(小春香歌)	오동추야(梧桐秋夜)	오동나무에 비친 달이자 11월의 가을밤	오동추야(梧桐秋夜) 긴긴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노
소춘향가(小春香歌)	일월무정(日月無情)	해와 달이 무정하다는 의미로, 세월의 덧없음을 표현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소춘향가(小春香歌)	옥빈홍안(玉鬢紅顏)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소춘향가(小春香歌)	공노(空老)	덧없음, 허무함을 지닌 늙음이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속미인곡(續美人曲)	데	저기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속미인곡(續美人曲)	훈더이고	하구나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속미인곡(續美人曲)	백옥경(白玉京)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 하야 니별(離別)하고
속미인곡(續美人曲)	눈을	누구를	히 다 더 저먼 날의 눈을 보라 가시는고
속미인곡(續美人曲)	괴얌죽	사랑함 직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죽 훈가마는
속미인곡(續美人曲)	ㄱ튼	같이	물 ㄱ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속미인곡(續美人曲)	춘한고열(春寒苦熱)	봄날의 꽃샘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 하야 디내시며
속미인곡(續美人曲)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궂티 세시는가
속미인곡(續美人曲)	님다히	임 계신 곳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하니
속미인곡(續美人曲)	어등정	어수선하게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속미인곡(續美人曲)	모침(茅簷)	초가지붕의 처마.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속미인곡(續美人曲)	반벽청등(半壁靑燈)	벽에 걸린 푸른 등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 하야 불갓는고
속미인곡(續美人曲)	슬크장	실컷	므옴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속미인곡(續美人曲)	오던된	방정맞은	오던된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씨뎃던고
속미인곡(續美人曲)	허스(虛事)로다	허무하구나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속미인곡(續美人曲)	쇠여디여	죽어서	출하리 쇠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속미인곡(續美人曲)	번드시	환하게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석숭(石崇)	『인명』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富豪)(249~300). 자는 계륜(季倫). 형주(荊州) 자사(刺史)를 지냈고, 항해와 무역으로 거부가 됨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숭(石崇)이 죽어 갈 적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누거만재(累巨萬財)	매우 많은 재산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유령(劉伶)	중국 서진 시대의 시인이자 사상가, 죽임철현의 한 사람. 장자의 사상을 실천하였으며, 의욕의 자유를 추구하고 술을 즐긴 인물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호치단순(皓齒丹脣)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	가다가 한가운데 툇 끊어지었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뻑머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비부처	비벼서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처 이으리라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밧고도	몹시 얹밧고도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밧고도 알미위라
오륵가(五倫歌)	지친(至親)	매우 친함	어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 이라
오륵가(五倫歌)	오조(烏鳥)도 반포(反哺)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먹여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함을 이르는 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륵가(五倫歌)	국궁진취(鞠躬盡瘁)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말로 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	국궁진취(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오륵가(五倫歌)	말아스라	그만두자	국궁진취(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오륵가(五倫歌)	여고금슬(如鼓琴瑟)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처럼 부부 사이가 화락함	여고금슬(如鼓琴瑟)하면 기 아니 즐거우나
오륵가(五倫歌)	즉동금수(卽同禽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	그렇고 공경(恭敬)곳 아니면 즉동금수(卽同禽獸) 하리라
오륵가(五倫歌)	논화시니	나뉘었으니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논화시니
오륵가(五倫歌)	삼가하야	경계하여	벗을 사괴오디 처음의 삼가하야
오륵가(五倫歌)	구이경지(久而敬之)	오래도록 공경함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덕회여 구이경지(久而敬之)하여라
바람에 휘엇노라~	고아시라	곶겠느냐	춘풍(春風)에 피은 꽃이 매양에 고아시라
바람에 휘엇노라~	풍포포(風飄飄) 설분분(雪紛紛)	바람 속에 눈이 펄펄 날림	풍포포(風飄飄) 설분분(雪紛紛)할 제 네야 나를 부르리라
자술(自述)	사창	사불이나 집으로 바른 창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몽천요(夢天謠)	상해런가	생시이던가. '상해'는 '늘, 항상'의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몽천요(夢天謠)	백옥경(白玉京)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옥경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몽천요(夢天謠)	오호연월(五湖煙月)	오호의 물안개 속에 떠 있는 달. '오호'는 범여가 오를 멸하고 놀던 호수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랐다
몽천요(夢天謠)	십이루(十二樓)	중국 곤륜산에서 선인(仙人)이 산다는 열두 채의 높은 누각	뜻쯤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몽천요(夢天謠)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	백성들의 일을 의미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너 결의 무르리
몽천요(夢天謠)	엇던 바치	어떤 공인(工人), 목수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 위 낸고
만진춘별사(滿殿春別詞)	벼기더시니	우기시던 이. 또는 고집하시던 이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만진춘별사(滿殿春別詞)	소곳	연못	소곳 얼면 여홀도 도하니 여홀도 도하니
만진춘별사(滿殿春別詞)	원디평성(遠代平生)	시간상으로 오래전부터 평생을 의미	아소 님하 원디평성(遠代平生)에 여힐 술 모르 읍새
방옹시여(放翁詩餘)	시비(柴扉)	사립 짝을 달아서 만든 문.=사립문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방옹시여(放翁詩餘)	미록(麋鹿)	고라니와 사슴	전원(田園)에 도라오니 미록(麋鹿)이 벗이로다
방옹시여(放翁詩餘)	매몰(埋沒)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다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한 제 송죽(松竹)만 푸르렀다
방옹시여(放翁詩餘)	풍상(風霜)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풍상(風霜) 섞어 친 제 네 무슨 일 혼자 푸른가
방옹시여(放翁詩餘)	사호(四皓)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	사호(四皓) 진깃것가 유후(留候)의 기계(奇計)로다

		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선생(用里先生)을 이른다. 호(皓)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상산사호	
방옹시여(放翁詩餘)	유후(留候)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인 장량	사호(四皓) 진짓것가 유후(留候)의 기계(奇計)로다
방옹시여(放翁詩餘)	천말부운(天末浮雲)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	엇더타 천말부운(天末浮雲)은 오락가락하노
방옹시여(放翁詩餘)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수간초옥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작은 줄 웃지 마라
방옹시여(放翁詩餘)	만산나월(滿山蘿月)	산 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방옹시여(放翁詩餘)	불관(不關)	상관없다	시비(是非) 없는 후(後)이라 영욕(榮辱)이 다 불관(不關)타
방옹시여(放翁詩餘)	금서(琴書)	거문고와 책	금서(琴書)를 다 흡은 후(後)에 이 몸이 한가하다
방옹시여(放翁詩餘)	기사(機事)	욕심	백구야 기사(機事)를 잊은 너와 낸가 하노라
방옹시여(放翁詩餘)	한식(寒食)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한식날	한식(寒食) 비 온 밤의 봄빛이 다 퍼졌다
방옹시여(放翁詩餘)	무정(無情)한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맞고 인정이 없다 / 남의 사정에 아랑곳없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방옹시여(放翁詩餘)	화류(花柳)	꽃과 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예전에, '유곽'을 달리 이르던 말. =화가유항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방옹시여(放翁詩餘)	혜란(蕙蘭) 혜경(蹊徑)	난초 핀 좁은 길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슨 일인고
방옹시여(放翁詩餘)	고당소벽(高堂素壁)	'고당'은 높다랗게 지은 집, '소벽'은 흰 벽	고당소벽(高堂素壁)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방옹시여(放翁詩餘)	은강(銀缸)	은 등잔	은강(銀缸)에 불 붉고 수로(甃爐)에 향(香)이 진지
처용가(處容歌)	만두삽화(滿頭插花)	머리에 꽃을 가득 꽂는 모습	만두삽화(滿頭插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에
처용가(處容歌)	인찬복성(人讚福盛)	사람들이 기리고 복을 이루는 것	인찬복성(人讚福盛) 허샤 지나거신 특애
처용가(處容歌)	미나거신	뛰어나온	인찬복성(人讚福盛) 허샤 미나거신 특애
처용가(處容歌)	복지구족(福智俱足)	복과 지혜를 충분히 갖춘 것	복지구족(福智俱足) 허샤 부르거신 비에
처용가(處容歌)	홍정(紅靛)	붉은색의 가죽띠. ≒홍정대	홍정(紅靛) 계우샤 곱거신 히리에
우국가(憂國歌)	반무(反武)	문관이 무관이 됨	학문(學文)을 후려 치우고 반무(反武)를 한 뜻은
우국가(憂國歌)	진심보국(盡心報國)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함	삼척검(三尺劍) 둘러메고 진심보국(盡心報國) 하려 했더니
우국가(憂國歌)	의관문물(衣冠文物)	그 나라의 문화·문물을 이르는 말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우국가(憂國歌)	간위(艱危)	어려움과 위기	국가 간위(艱危)를 알 이 없어 서러운지고
우국가(憂國歌)	구중천(九重天)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九重天)에 사

		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폐소서
우국가(憂國歌)	지공무사(至公無私)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거창가(居昌歌)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 버린 모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거창가(居昌歌)	재결(災結)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재해를 입은 논밭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진마는
거창가(居昌歌)	회감(會減)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진마는
거창가(居昌歌)	묘당(廟堂)	나라의 정치를 하던 곳. 곧, 조정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진마는
거창가(居昌歌)	모야무지(暮夜無知)	날이 저문 밤, 남모르게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거창가(居昌歌)	황산고총(荒山古塚)	황폐한 산 옛무덤 속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거창가(居昌歌)	노방강시(路傍僵屍)	길가에서 얼어 죽은 시체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거창가(居昌歌)	세세민정(細細民情)	세세한 국민의 사정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가
거창가(居昌歌)	여민동락(與民同樂)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김. 누여민해락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수심가(愁心歌)	월도사창(月到紗窓)에 첩한다(妾恨多)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음	근래안부(近來安否)가 문여하(問如何)요 월도사창(月到紗窓)에 첩한다(妾恨多)인데
수심가(愁心歌)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만약 나의 꿈속의 혼이 자취 있다면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수심가(愁心歌)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임	약사몽혼(若使夢魂)으로 행유적(行有跡)이면 문전석로(門前石路)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수심가(愁心歌)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 變再逢春)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오	강산불변재봉춘(江山不變再逢春)이요 임은 일거(一去)에 무소식이로구나
수심가(愁心歌)	계변양류(溪邊楊柳)	시냇가에 있는 버들나무	계변양류(溪邊楊柳)는 사사록(絲絲綠)이요 무릉도화(武陵桃花)는 점점홍(點點紅)이로구나
수심가(愁心歌)	동정여천(洞庭如天)이 파시추(波始秋)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가을을 알림	청포(靑袍)로 일상만리선(一上萬里船)하니 동정여천(洞庭如天)이 파시추(波始秋)로구나
수심가(愁心歌)	자귀	두견새	아 자귀야 우지를 마라 울 양이면 너 혼자 울거지
영산가(令山歌)	영산홍록(映山紅綠)	붉은 꽃과 푸른 잎이 무성하여 산을 붉고 푸르게 덮음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집(黃蜂白蝶)
영산가(令山歌)	황봉백집(黃蜂白蝶)	노란 벌과 흰 나비	영산홍록(映山紅綠)에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집(黃蜂白蝶)
영산가(令山歌)	산양산기(山陽山氣)	산의 남쪽 부분에서 산이 뿜는 따뜻한 봄기운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산기(山陽山氣)를 자랑하고
영산가(令山歌)	죽장(竹杖)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죽장(竹杖)을 짚고 망혜(芒鞋)를 신어라
영산가(令山歌)	세류영(細柳營)	중국 섬서성의 지명. 한나라 주아부가 병사들을 주둔시켰던 곳에 넘노는 듯	황금 갑옷 떨쳐입고 세류영(細柳營)에 넘노는 듯
영산가(令山歌)	막교지상(莫教枝上)	피꼬리가 가지 위에서 우는 것	타기황앵(打起黃鶯) 아이들은 막교지상(莫教枝上)에 한을 마라
영산가(令山歌)	초로인생(草露人生)	인생의 덧없음을 풀잎의 이슬에 비유한 말	나와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한번 끄적 죽어지면
영산가(令山歌)	소방상	좁은 곳에 사용하는 작은 상여	칠성포로 짚끈 묶어 소방상(小方相) 댓돌 위에
영산가(令山歌)	노류장화(路柳牆花)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노류장화(路柳牆花)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 만 놀아 보세

		뜻으로,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율리유곡(栗里遺曲)	수출전원(守拙田園)	전원에서 옹졸하게 살아감	도로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기오 내오 다르라
율리유곡(栗里遺曲)	저리집치	절인 집치	팔죽 달게 쭈고 저리집치 꼬어내니
율리유곡(栗里遺曲)	변우한	괴로운 근심스러운	세상 변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율리유곡(栗里遺曲)	일성어적(一聲漁笛)	한 줄기 피리 소리	어디서 일성어적(一聲漁笛)은 조차 흥(興)을 돕나니
율리유곡(栗里遺曲)	초야(草野)	풀이 난 들이라는 뜻으로, 궁벽한 시골을 이르는 말	초야(草野) 군현(群賢)이 다 이러나단 말가
율리유곡(栗里遺曲)	모침(茅簷)	초가지붕의 처마	모침(茅簷) 기나긴 희에 희울 일이 아조 업어
율리유곡(栗里遺曲)	으흠흠머	하품하며	문(門)밖귀 누 으흠흠머 낙시가자 흐느니
율리유곡(栗里遺曲)	만호우(萬戶侯)	만호의 집을 가진 제후의 부귀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우(萬戶侯)인들 부르라
율리유곡(栗里遺曲)	장일취(長日醉)	하루 종일 길게 취하고 논다는 의미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장일취(長日醉)로 노노라
율리유곡(栗里遺曲)	행화(杏花)	살구꽃	원골에 행화(杏花)져 빠히니 갈 길 몰라 흐노라
한양가(漢陽歌)	백각전(百各塵)	조선 시대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들	타국 물화(物貨) 어울리니 백각전(百各塵) 장할시고
한양가(漢陽歌)	칠패	서소문 밖에 있던 시장으로 지금의 남대문 시장의 전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한양가(漢陽歌)	제세안민(濟世安民)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북천가(北遷歌)	방수심산(訪水尋山)	물을 찾고 깊은 산을 찾음을 의미 / 산수구경	칠보산 한번 가서 방수심산(訪水尋山) 었더 혼고
북천가(北遷歌)	첨령(瞻聆)	보고 들음 /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미	분의에 미안하고 첨령(瞻聆)의 괴이(怪異) 흐니
북천가(北遷歌)	섬섬(纖纖)한	가냘프고 여리다	섬섬(纖纖)한 손길 못히 오식이 영농흐다
북천가(北遷歌)	영웅절스(英雄節士)	영웅 중에 절개를 지키는 선비	영웅절스(英雄節士) 업단 말은 사칙(史冊)에 잇는니라
북천가(北遷歌)	거적(居謫)	유배지에 잘 있는 것	거적(居謫)을 잘흐 거시 아조 모도 네 덕(德)이라
북천가(北遷歌)	천애(天涯)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천애(天涯)에 이 횡각이 이럴 줄 아라던가
북천가(北遷歌)	슈노(首奴)	관아에 딸린 관노의 우두머리. 관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사정에 밝은 사람이 맡음	홍진호여 도라와서 슈노(首奴) 불리 분부흐되
북천가(北遷歌)	화한중(豪華閨中)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것	기성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흐니 호화한중(豪華閨中) 불안흐다
북천가(北遷歌)	녹의홍상(綠衣紅裳)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르는 말	군슨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씨엿고나 솜이로다
자모사(慈母思)	살뜰히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자상하고 지극하게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 준 줄 아소서
자모사(慈母思)	우긋이	무성한 모양	우긋이 어겼으니 무정할 손 추초(秋草)로다
자모사(慈母思)	므가나	미운	므가나 나를 고히 보심 생각하면 되 서워라
자모사(慈母思)	봉사	봉선화의 와(詔), 소녀들이 봉선화를 짓궂어서 손톱에 홍색을 들이니 이를 봉사들인다고 함	봉사도 님 따라간지 아니 든다 읊내다
자모사(慈母思)	바릿밥	여자의 밥그릇에 담긴 밥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로, 어머니 몫의 더운밥을 뜻함	
자모사(慈母思)	보공	관 속에 시신을 놓힌 다음 관의 빈 곳을 채우는 물건	숨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어라
자모사(慈母思)	신색	몸의 표면에 나타나는 빛깔. = 몸빛 / 상대방의 안색을 높여 이르는 말	그리워 하 그리워 님의 신색 하 그리워
자모사(慈母思)	구십춘광(九十春光)	봄의 석 달 동안 /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 날씨	구십춘광(九十春光)이 한 웃음에 퍼지서라
자모사(慈母思)	악마디	억센	악마디 풋저림을 이 없을 때 잡숫더니
자모사(慈母思)	범연타고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하다	친구들 나를 일러 집안 일에 범연타고
자모사(慈母思)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 ≒ 행운	열구름 뜨자마자 그조차도 불어 없다
자모사(慈母思)	괴리가	속여 넘김	가서도 계신 듯하니 한 걸음을 괴리가
자모사(慈母思)	지질한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지질한 그날 그날을 뜻 받았다 하리오
자모사(慈母思)	맛본상	겸상으로 보아 놓은 밥상	주막집 어둔 등잔이 맛본상을 비취라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희파27)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료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로,
이 자료를 이용한 2차 저작물에 활용 / 무단배포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